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0월 24일(금)

---(음력 9월 4일)---

Пятница

24 октября 2025 г.

№ 41 (1215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26일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주 정부와 법집행부가 합동으로 마약퇴치에 나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마약류 확산 및 사용 퇴치를 핵심 주제로 사할린주 법집행 확보를 위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법집행기관과 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 및 유사한 약물의 불법적 유통 근절과 마약중독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에 대해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미래인 청년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마약 공급망을 엄격히 차단하고,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일도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사할린주가 법집행기관과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을 해야 마약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9개월간 사할린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집행기관과 정부와 공동의 노력으로 마약 범죄 적발률도 증가했다.

지난해 유사기간 대비 마약 불법유통 범죄 건수는 96.7%를 넘어섰으며, 마약 관련 범죄의 절반 이상(66%)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발생한 가운데 아나야, 홈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에서도 상당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

사할린주 웨체슬라브 사이베코브 검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4000명이 넘어 사할린주 인구의 1%에 해당되며, 공식 통계상으로는 증가 추세이다. 1천 명 이상이 마약류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24년 러시아 보건부에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의존증은 인구 10만 명당 15.7명에 해당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정회의에서는 마약예방체계 대한 기관들의 업무 성과와 체계의 미흡한 점 및 마약중독자를 위한 의료적, 사회적 문제, 치료기관의 기술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사할린주 검찰청이 마약관련 활동 감찰을 위한 효율적인 작업 개선안을 제안해 조정회의 결정에 반영됐다.

### 2026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유즈노사할린스크 '스마트'아동병원 2026년에 개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젤레즈노도 로즈나야 거리에 현대적인 아동병원 건설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1만 명의 어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병원엔 전체 종합적인 진단서비스와 주간 입원실, 재활부서가 갖추어진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동병원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료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과 아동을 위한 종합 외래진료소가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호무토위에 건설되고 있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유아 환자들을 위한 2개 의료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달네에 마을에 교대로 170명의 아동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를 올 연말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젤레즈노도 로즈나야 거리의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번째 외래진료소는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예멜리아노와 거리에 있는 아동병원 하나만 운영되고 있다. 두 개의 현대식 아동병원 건설을 통해 진료 부담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는 더욱 가까이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고, 추가 서비스도 제공된다. 예를 들면 젤레즈노다 로즈나야 거리의 새로운 외래진료소는 운동치료법을 제공하고, 체력단련 기구를 갖춘 벽과 특수 체력단련 기구가 설치된 홀에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사할린의 아동들이 외상 후 및 질병 회복 시 재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시설에는 50명의 소아과 의

사와 세부과목 전문의가 근무하고, 특히 아동들 대상 수요가 높은 치과 진료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1건설업체 특별 부서장인 안드레이 우름은 젤레즈노도 로즈나야 거리에 있는 보건소는 사할린에서 가장 '스마트한(똑똑한)' 진료소가 될 것이라며 감기증상을 앓는 아동이 다른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구역을 설정해 두었고, 엑스레이, CT 촬영기, 진단에 필요한 모든 진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료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해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실을 포함해 총 130개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현재 건설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돌린스크와 마카로브에는 2027년 - 2028년까지 현대적인 2개의 보건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장수하는 활발한 생활>국민 기획의 일환으로 최우선적 현대화 프로그램으로서 의료시설들이 마을들에 건설되고 있다.

올해는 응급조산소가 피오네르(홈스크 지역), 포베지노(스미르니흐 지역), 다츠노예, 트레치야 파지, 레스노예(코르사코브 지역), 페트로파블롭스크, 우스펜스코예, 오곤키(아나와 지역) 마을 등 8곳에 건설되고, 올해 연말까지 3개의 외래진료소가 프라브다(홈스크 지역), 고르노예(쿠릴스크 지역), 키롭스코예(트롭스코예) 마을들에서 개원될 예정이다.

## 단신

### 주지사, 노동조합장들과 만나 현안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가 노동조합 조합장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만나 주민들의 주거, 금융, 임금체불, 고등교육 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극동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육 및 교통 분야 질의도 이어졌다. 주지사는 '사할린테크' 캠퍼스 설립 등 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월나' 전국대회, 극동지역 학생 단원 참가, 사할린에서 성료

극동 지역 "러시아 학생단" 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국 '월나(파도)' 대회가 3일간 사할린주에서 개최됐다. 극동 연방관구 10개 지역에서 모인 200명의 참가자들은 전문성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교육, 건설, 어업, 의료, 언론 등 6개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다. 이 밖에 스포츠, 문화, 창작 경연도 진행됐으며, 사할린주 팀은 종합 창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청소년청(로스몰로조쥬) 산하 전문개발센터 '오스트로와'와 사할린 지역 학생단이 주최했으며, 국가 차원의 <청소년 및 아동>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사할린 대학생들, 등록금 50% 지원 신청 접수

사할린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 사회보호부는 관련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 지원금은 2025-2026학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주내 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 과정으로 처음 대학 교육을 받는 신입생 중 첫 해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준다. 올가 올로와 사할린주사회보호부 장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서면 신청서를 사회보호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에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이유로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한정된다.

### 사할린주, 불법 체류 외국인 14명 강제 추방

사할린주 당국은 '불법체류자 2025' 제도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며 14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국외로 추방했다. 경찰은 10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68건의 행정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이중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 주택에서는 신고된 주소와 다르게 체류한 8명이 적발됐으며, 한 식당에서는 위조 문서를 제시한 외국인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설명회 개최

## 2025년도 선정자 사전 안내 및 2026년도 신청 일정 등 본격 설명

지난 10월 20일(월) 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소재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의 주최로 두 차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사할린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사할린에 방문한 한국 대표단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이규현 과장·박규주주관·서현규 주주관과 대한적십자사 복지사업팀 정재은 팀장·박운주 과장·정명주 대리로 구성되었다. 또한 회의에는 사할린 현장에서 영주귀국사업을 하고 있는 공관으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의 이 실무관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에 약 11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도 최종 선정된 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사전 안내 세션과 ▲ 2026년도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사업 설명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온라인 중계와 러시아어 통역이 제공되었다.

〈2025년도 영주귀국 대상자 대상 세션〉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동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입국 및 정착 절차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이 이루어졌다.

• 주택 배정 현황: 현재 임대주택 배정 중, 10월 중 배정 완료시 재외공관·한적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

• 입국 일정 및 방법: 2025년 12월 중 대한적십자사의 인솔에 따른 단체 입국이 예정되어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동해 선박 운항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주요 안내 사항: 입국 전 비자(F-4 등) 신청, 현지 자산 및 세금 정리, 필요서류 준비 등 사전 준비사항과 한국에 도착 후 외국인등록, 주택 계약, 복지급여 신청 등 정착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2026년도 영주귀국 신청 예정자 대상 세션〉

오후 세션에서는 내년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을 위해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 신청 일정: 2026년도 영주귀국 신청 접수는 2026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2월 중으로 접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알렸다.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반



가족 범위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어,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2026년도 선발대상 인원 : 미정 (참고: 2025년 234명)

•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선정 우선순위, 결격사유 등 신청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할린에 방문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이규현 과장·박규주주관·서현규 주주관과 대한적십자사 복지사업팀 정재은 팀장·박운주 과장·정명주 대리로 구성된 대표단은 사할린한인 사회단체(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한인연합회 등)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 파악을 하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이 모 저 모

### 불법 유통된 백만 루블리 상당의 연어알과 대게 보관창고 적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부부가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에 대한 허가 서류나 등록 없이 판매를 해왔다고 내무국 소식통이 전했다.

사할린 경찰청이 해산물 불법 판매를 적발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한 부부의 집과 가게에서 허가 서류나 상표가 없는 300kg 이상의 연어알과 대게, 생선,굴을 발견했다. 압수된 총 물품의 가치는 95만 루블리가 넘었다.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32세의 사업가와 부인(36세)은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서 생선을 구매했고, 생선가공 장비가 비치된 지인의 자택에서 가공 및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가 없는 연어알과 생선은 이들의 상점과 시내 다른 상점을 통해 판매되었다.

이 사건으로 부부에게 대규모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되었고, 현재 이동이 제한되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 На Сахалине раскрыли склад с нелегальной красной икрой и крабами на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Супруг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рговали рыбой и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ркировки, сообщает «МВД Медиа».

Полицейские Сахалина раскрыли незаконный бизнес по продаже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доме и магазине супруг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шли более 300 килограммов красной икры, крабов, рыбы и устриц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ркировки.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изъятого — свыше 9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32-летн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 его 36-летняя жена закупали рыбу у не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Продукцию перерабатывали и фасовали в частном доме знакомых, где стояло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маркированную икру и рыбу продавали в собственном магазине и через други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города.

На супругов заве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за незаконный оборот немаркиров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особо крупном размере. Пока их отпустили под подписку о невыезде.

### 사할린 화가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5년 우수작품 전시

사실적 풍경화와 철학적 사진 콜라주부터 정물화와 장식-

응용미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전문 화가연맹 사할린 지부가 '화가의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 해 동안 화가들의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전시회로 가장 다양한 화법과 유형으로 제작된 사할린 작가들의 작품 70점 이상이 출품되었다.

전시회는 풍경화를 비롯해 정물화와 초상화, 장식 및 응용미술, 다큐멘터리 사진, 철학적 콜라주 등을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 작품들의 공통된 주요 주제는 사할린의 바다 수평선의 아름다움과 북방의 일몰 풍경, 지역 주민들의 노동과 일상이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묘사되었다.

전람회에 가장 독특한 화법 중 하나는 시아노티피아(빛에 민감한 철염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제작과정으로 파란색 음영의 이미지)로 왈레리 옐리세예와 화가가 자신의 작품 제작에 사용한 오래된 사진제작 기법으로서 몇 가지 철학적 구성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 참가자들 중에는 신진 화가를 비롯해 50년 이상 회화에 전념해온 옐레나 니키포로와 같은 거장의 작품도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화가들이 더 널리 관람자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쳐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번 전시회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사할린주 화가'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문화부의 지원 속에 안톤 체호브 '섬 사할린' 책 박물관이 주최했다.

누구나 사할린 화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회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티몰 2층에 위치한 '화가들의 도시' 회관에서 열린다.

### Островные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лучшие работы 2025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 реалистичных пейзажей и философских фотоколлажей до натюрмортов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в «Городе художников» открыли экспозиц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Экспозиция, ставшая своеобразным творческим отчетом за год, объединила более 70 работ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выполненных в самых разных техниках и стилях.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живописные пейзажи, натюрморты и портреты, произведени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отографии и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коллажи. Главной темой, объединившей большинство работ, стал Сахалин, вдохновляющий художников на создание произведений о красоте морских горизонтов, северных закатов, а также о труде и быте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Одной из самых необычных техник на выставке стала цианотипия — старинный метод фотопечати,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художница Валерия Елисеева. 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несколько философских композиций, созданных с помощью этого метода.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выставки были как молодые авторы, так и признанные мастера, например художница Елена Никифорова,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живописью уже более 50 лет.

Эта выставка — ред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художник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Она организована музеем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16 января в галерее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ТРК «Сити Молл».

###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적> 전 러시아 경연 준결승에 1500 팀의 가족 진출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의 전문가위원회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적〉 제 2차 경연으로 연방관구별 준결승전의 참가자들을 발표했다. 2차 준결승전에 전국에서 1,523 팀의 가족이 출전했다. 경연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준결승 진출 가족을 확정된 가운데 2025년에 직접 참가 행사의 일정도 결정했다. 경연 참가자들은 결승전 진출권과 주요 상품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500만 루블리 상당의 60개의 상품권, 가족 여행이용권을 놓고 경쟁을 치르게 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제1 부실장이며, 이 경연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세르게이 카리엔코는 이 기획이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년 전 경연을 시작하면서 이 경연의 대중성을 예고했는데 그 예측이 옳았음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 경연에는 작년보다 많은 72만6천 명이 등록했다. 카리엔코 제1부실장의 말에 따르면 가족적 경연에 대한 높은 관심은 가정적 가치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자세를 반영하고, 가족적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자녀 가정, 노인세대 대표들과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체 귀족 가문들이 참가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원격단계의 경연이 4개월간 진행되어 이 기간에 참가자들은 창작에서부터 스포츠, 요리에 이르기까지 48개의 과제를 치렀다.

(8면에 계속)

## 사할린한인연합회, 사할린한인의 현안 문제로 콘퍼런스 개최

사할린한인연합회가 2025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실용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과 한반도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됐다.

콘퍼런스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알마티(카자흐스탄) 그리고 사할린 각지의 사할린한인 활동가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할린에 대한 콘퍼런스는 2022년 10월과 2023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사할린한인 현안 문제에 대한 실용학술 콘퍼런스의 주제를 이어갔다. (해당 행사 관련 자료는 '새고려신문'에 게재했음.)

콘퍼런스에서는 영주귀국, 의료지원, 언어와 문화 보존, 그리고 비즈니스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2세대의 영주귀국 권리에 대한 개정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부모가 별세한 2세대 동포들도 대한민국이 실시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논의 결과, 현재 해당 개정안을 검토 중인 대한민국 국회가 개정안 지지 서한을 채택하면 이를 한국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 활동가들은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3년간(2022-



2025년) 이루어진 실질적 조치들에 대해서 연합회 소속 자문위원회 박 알렉산드르 위원장이 보고했다. 또한 연합회 청년부의 알리사 불치나는 3, 4세대 사할린 동포를 위한 지원조치에 어떤 것이 있으며,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조치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를 발표했다.

특히 연합회의 자문위원인 한 넬리(알마티 소재, 카자흐스탄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교수)는 한국어의 특징과 학습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진행했다.

행사 마무리로 요즘 사할린한인들 사이에서 뜨겁게 대두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토박이'를 상영했다. 프로듀서 세르게이 하와 감독 안톤 도카는 많은 질문에 답하고 연합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는 모든 세대의 사할린한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알렉산드르, 모스크바)

## 한국어 경시대회의 주제는 한민족의 살아있는 전통

지난 10월 16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시대와 세월 속 한민족의 살아있는 전통»을 주제로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열렸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베라)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공동 주최하고 사할린주 정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의 첫 서면 단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돌린스크의 학교 5-11학년 학생 90명과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1-3학년 학생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카잔, 이르쿠츠크, 하비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오하 등 도시의 학교 학생 및 대학생들이 처음 원격으로 참가했다.

서면 시험 문제는 민요 (아리랑), 김장, 판소리,

씨름, 탈춤, 농악 등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었고, 이번 단계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전국 규모의 <섬의 경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경시대회의 두 번째 단계(창의성 부문)는 활동교실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민화 <호작도>(까치와 호랑이)의 상징성에 대해 배운 뒤, 주최 측의 지도 아래 웅맹하면서도 친근한 호랑이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형상화한 테마 열쇠고리를 직접 제작해 보았다.

올림피아드의 마지막 단계는 지성 대결 (브레인 배틀)의 흥미진진한 형식으로 오는 11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낙선

관리번호	95694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낙선	한자	金洛善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5-08-05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북도 경성		

### 공훈록

1920년 10월 8일(음력 8월 28일) 대한의군부 단원 김종화(金宗化)와 박봉래(朴奉來)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의군부 독립군에 필요한 총기와 탄환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장재웅(張載鷹)과 함께 김종화와 박봉래의 의뢰를 받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스베틀란스카야 가(街)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니콜라이 알렉산드르비치로부터 소총 125정과 탄환 12,500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1920년 10월 9일 구매한 소총과 탄환을 옮기던 박봉래와 함께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21년 2

월 23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공소하였다.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을 이유로 1921년 5월 6일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상고하여 1921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2년 6월 18일 만기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3. 24, 4.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10)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1)(선인(鮮人)의 행동(行動)에 관한 건, 포조(浦潮) 총영사(總領事): 1920. 10.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61~1167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라

## 사할린동포의 염원이다! 국회는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부모 사망에 따라 귀환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법, 해방 80년인 올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여 동포 포용의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오늘(2025년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사할린 동포법)의 조속한 심사 및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사할린 동포법은 사할린동포의 생존 여부에 따라 부모사망 2세를 포함한 다수의 2세 동포들의 영주귀국 권리를 불평등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한국 정부의 역사적 책임 문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해방 80년을 맞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현행 <사할린 동포법>은 사할린 동포의 정의를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와 일부 2세가 포함되어 있어, 대다수의 2세가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동반가족 개념이 사할린 동포의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2세들의 평등한 귀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며,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피해가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방지하는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사할린 한인협회의 출생연도별 영주귀국 현황(출처: 사할린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6.18.)을 보면, 영주귀국 사업 시작 당시 강제동원 당사자인 1세 동포(1931년 이전 출생)는 916명(25%)이었던 반면, 해방 전 사할린에 있던 2세들(1932~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은 2,739명으로 더 많았다. 이 통계는 영주귀국 사업이 이미 1세 당사자들이 상당수 사망한 후에 진행되었고, 그들의 자녀 세대 일부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약 3천여 명의 사할린 동포 2세 중 1천3백여 명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 만큼, 영주귀국 대상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는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지만, 해방 이후 40여 년이 지나서야 영주귀국이 시작되었고, 사할린동포법에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만큼, 한국 정부는 뒤늦은 영주귀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영주귀국은 신원보증 가능한 고령 독신자로 시작하여 사할린 동포 1세로 한정된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거쳐 1세와 배우자, 장애자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법>제정으로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그 자녀들까지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영주귀국대상 확대가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결국 한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임을 방증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청, 외교부 등 관련 당국은 부모사망 2세의 귀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 동포 2세의 평등한 귀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5년 9월 6일 상정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하여, 부모사망 2세를 포함한 모든 사할린 동포 2세에게 영주귀국의 길이 열리도록 조치하라.

하나, 국회는 해방 80년을 맞는 올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외동포청은 국가의 역사적 책임과 동포 포용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4일  
KIN(지구촌동포연대)

## 사할린의 기업들 <브랜드의 힘> 박람회에서 자사 제품 발표

지역 사업개발 및 지역 생산자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 25개의 생산업체들이 시티몰 쇼핑센터 행사장에서 자사제품들을 선보인 가운데 제품들 중에 사할린의 클로포브카향의 목욕 소금, 가공 생선, 제과류, 수공업품들이 전시되었다. 박람회 주최자인 신 올가는 "이러한 다방면의 박람회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이는 지역 브랜드개발과 경험 교류 및 사업관계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박람회는 예전에 일반 소비자들이 폭넓게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롭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람회 고객들은 식품 판매대에서 지역 생산제품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 식품을 맛보고 원하면 구매할 수도 있다.

미하일 시린스키 기업 사장은 "저의 사업은 첫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모이 비즈니스(나의 사업)'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 분야에서 중요한 도움을 받아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은 해외 인접 국가를 비롯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의 지시 덕분에 중소기업을 하는 우리는 무료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며,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로모 추천의 당첨 기회도 얻어 시간마다 진행되는 추첨기를 통해 행운의 당첨자들은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선사하는 반값고도 귀중한 상품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추진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박람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 개최되는 지역 생산품 박람회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직접 감독하고 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АСК провела конференцию по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выступ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7–18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знаковой дате –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Конференция вызвала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ктивист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ладивосток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и, конечно, из мног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нынешня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Сахалине тематически продолжила работу форумов, прошедших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октябре 2022 года и в июне 2023 года, где также обсужд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териалы об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ходе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репатри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охране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внесения в действующ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правок, улучшающих пра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Это позволит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з

числа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скончались,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сужде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обращение к Парлам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поддержке внесённых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вопрос о принятии которых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страны.



Активисты АСК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занимаются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ах, предпринятых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2022–2025 гг.),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НКО АСК Александр Пак. Член Молодёжного комитета АСК Алиса Вульчин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о том, какую поддержку можно и нужно оказывать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третьего и четвёртого поколений. С невероятно интересной лекцией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рудностях его освоения выступила профессор PhD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член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НКО АСК Нелли Хан (г. Алматы).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смотром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авторы которого Сергей Ха и Антон Дока ответили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 и поблагодарили АСК за поддержку.

АСК продолжит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Александр Пак, г. Москва**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 На Сахалине разъяснил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20 ок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свящё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поддержке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сотрудн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К собранию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 других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재외동포청), посетили около 110 человек. Для удоб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был обеспечен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ограмм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сессии: утренняя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же включённых в список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2025 года, а дневная —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2026 года.

**Ключевые моменты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2025 года:**

·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групповой въ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декабрь 2025 года. Перес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аромом по маршруту Владивосток — Тонхэ. Точные даты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позднее.

· Детально разъяснены этапы въезда, процедура получения виз, порядок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ов аренды жилья с корпорацией LH, а также виды и условия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снов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заявителей на 2026 год:**

· Подача заяво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период со 2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2026 года. При э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отметили, что сроки могут быть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а приём документов может начаться уже в феврале.

· Будущим заявителям разъяснили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перечень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ключевые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2026 г. еще не определено. (Для справки: в 2025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ило 234 чел.)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ровела ряд встреч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ш корр.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дин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Любимому брату!

Моя родина, мои любимые горы и реки, мои дорогие родители и братья! Прошло уже 33 года с тех пор, как я покинул свой дом и родных.

Старший брат интересуется, как у вас дела.

Все ли в порядке у родителей, здоровы ли они, и как поживают братья?

Кажется, братья обижаются на меня.

Дорогой Ин Гу, старший брат сетует на свою жизнь. Он очень сожалеет, что оставил младших братьев. Он всегда смотрел в сторону южного неба и плакал, а его сердце не может успокоиться от обиды за прожитую жизнь.

Узнав 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старший брат решил написать брату. Как только ты получишь это письмо, передай привет нашей семье. В ответном письме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и о нашей семье. У меня всё хорошо, так что не волнуйся.

Хватхэ (1)

Ваш покорный слуга Ли Иль Гап  
(прежнее имя – Ли Тхэ Чик)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й

(1) Хватхэ (화태) – корейское прочтение двух иероглифов 樺太, п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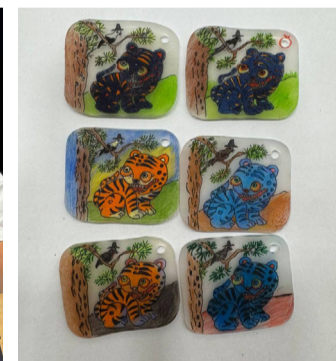
реводимых как «толстая береза». Японское чтение тех же иероглифов произносится как Карафуто. Это название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рименяется к периоду истории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под япон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с 1905 по 1945 г., когда там находилось японское губернаторство Карафуто. Более широко японцы применяют слово «Карафуто» ко всему Сахалину, используя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ами-Карафуто» (Южный Сахалин), «Кита-Карафуто» (Северный Сахали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 в Японии, и в Корее больше всего используетс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строву названия «Сахарин», «Сахалин».

Слово «Карафуто» происходит от айнского слова «камуй-кара-путо-я-мосир», что означает «земля бога устья». Японцы взяли айнское слово и подобрали к нему схожее по звучанию японское слово «Карафуто». Также это слово подобран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 вид береза каменная (или береза Эрмана), который отличается крупным стволом дерева, холодостойкостью, теневыносливостью и нетребовательностью к плодородности и влажности почв.

Олия Дин, к.и.н.

##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народа – тема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16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пешно стартовала Олимпиад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народ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времен и эпох». Организаторы —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письменный, этап Олимпиады собрал 90 школьников 5–11 класс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Долинска, а также 40 студентов 1–3 курс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первые к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состязаниям дистанционно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из Казани, Иркутска, Хабаров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Охи. Тестовые задания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глубинным аспектам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ключая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Ариран», процесс заготовки кимчхи «кимджан», музыку «пхансо-ри», борьбу «ссырым», танец «тхальчхум» и крестьянскую музыку «нонак».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этого этапа получат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В тот же день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этап —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который прошёл в форме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Участники узнали о символике старинной нар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картины (минхва) «Сорока и тигр» (Ходжакдо), созданной в формате традиционной живопис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ставников ребята созда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ематические брелки, изображающие доблестного, но дружелюбного тигра и сороку – вестницу добрых новостей. Оба этапа прошли в актов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Олимпиады пройдет 7 ноября в увлекательном формат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ы «Брейн Баттл».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Инчхоне прошла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АТЭС

Министры финансов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собрались в Инчхоне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инновациями, финансами, налогово-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ой и структурными реформами. Совещание прошло с 21 по 23 октября под девизом «Постро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будущего». Это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встреча на уровне министров перед саммитом АТЭС,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31 октября - 1 ноября. «Мы надеемся на продуктивные и содержательные обсуждения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РК Ку Юн Чхоль. Министры финансов стран-член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заседании, прошедшем в Инчхоне, приняли «Инчхонский план». Этот докумен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редне-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яет направ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устанавливает основные темы и подтемы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на встречах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на следующие пять лет.

## В РК началась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С 22 октября по 18 ноября в РК пройдет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и учёт жилого фонда. В отличие от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раньше, нынешняя перепис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по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е. 20% домохозяйст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5 млн) пройдут углублённое анкетирование, а данные об остальных домохозяйствах будут собраны на основании имеющих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анных. Домохозяйства, отобранные для анкетирования, будут уведомлены об этом по почте. Каждому из них будет присвое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номер, и до 31 октября они смогут пройти перепись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Те домо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е н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ерепис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в период с 1 по 15 ноября посетят счётчики, которые заполняют анкеты со слов участников перепис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дготовлены электронные анкеты на 20 язык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олицию завоёвывать доверие людей

Единственной основой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олицией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является доверие народ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1 октября на церемонии в Сеуле, посвящённой Дню полиции. Он призвал полицию внедрять инновации и развиваться, повышая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 проведении расследований.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условиях подготовки страны к поэтапному расширению автономной полицейской системы и разделению следственных и обвинительных полномочий.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олицию стать «умной» силой, способной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овым угрозам, таким как наркотики, голосовой фишинг и дипфейки.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пообеща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и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улучшения.

## В РК стартовала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по содействию экспорту

21 октября стартовала крупнейшая в РК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по содействию экспорту Boom-Up Korea Week-2025,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7 ноября. Её цель -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всего мира к отечественным компаниям в преддверии самми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ся 31 октябр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700 компаний из 70 стран и около 4 тысяч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более 10 тысяч экспорт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жидается заключение экспортных сделок и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35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амках ярмарки пройдут 28 отраслевых выставок, посвящённых технологиям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ик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мобильность будущего, судостроение и биомедицину.

## 51%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объединение с Севером ненужным

51%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объединение с Севером ненужным.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тысячи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с 10 июля по 13 августа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49% опрошенных считают объединение необходимым. Это на 3,8%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ых опросов в 2014 году, доля тех, кто считает воссоединение необходимым, составила менее половины опрошенных. 63,2% респондентов согласились с утверждением: «Если Юг и Север смогут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без войны, то в объединении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с момента включени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в анкету.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RKI

## Цена легких денег

### Обещания "высокой зарплаты" для сотен южнокорейцев обернулись пленом и гибелью в Камбодж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сотни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ись жертвами чудовищной схемы трудового обмана, превратившейся в настоящее рабство. Под предлогом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ой работы за границей" их заманивали в Камбоджу, где они подвергались пыткам, удерживались в заточении и принуждались к участию в онлайн-мошенничестве. Некоторые погибли.

### Как все началось

Скандал вспыхнул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после гибели 22-летнего 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та, замученного преступниками в Камбодж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туда заманивали через сайт Hades Café, где под видом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вакансий за рубежом" публиковались объявления о работе переводчиками и SMM-менеджерами. Уже после первых разоблачени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форума поспешно удалила тысячи сообщений, чем фактически уничтожила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Молчание властей и бездействие регуляторов, способных закрыть сайт еще весной, лишь усил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е возмущение и придали делу политический масштаб.

### "Работа мечты", обернувшаяся пленом

На форумах и в мессенджерах появлялись объявления о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ой работе" в Камбодже, Таиланде и Вьетнаме. Молодым людям предлагали должности переводчиков, сотрудников отелей, операторов кол-центров, SMM-менеджеров, помощников по маркетингу 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Рекламировались "легальные IT-компании", обещавшие зарплаты от 6 до 8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бесплатный перелет, проживание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апартаментах" и "дружный коллектив, состоящий только из корейцев". Рекрутеры уверяли: "Это не совсем легально, но абсолютно безопасно. Главное - не паниковать и выполнять инструкции".

Однако, оказавшись на месте, соискатели лишались документов и связи. Их перевозили в принадлежащие преступ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охраняемые здания, чаще всего в районе Сиануквиля, где заставля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лосовом фишинге, выманивая деньги 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открывать подставные счета.

Тех, кто оказывал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одвергали пыткам, избивали и держали в заточении без еды и воды. Именно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погиб 22-летний студент, после чего и начался нынешний скандал.

### "Кафе Аид": фабрика лжи и страданий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находится сайт Hades Café, созданный в 2023 году якобы для обмена вакансиями. Он и стал крупнейше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вербовки в преступные схемы - от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до подставных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После громких разоблачени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бъявила, что "удаляет все публикации о работе за рубежом" и "глубоко сожалеет о произошедшем".

Одна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это вызвало лишь возмущение: пользователи и СМИ обвинили владельцев ресурса в уничтожении доказательств.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на "кафе" за два года было размещено около 18 тысяч объявлений, из которых власти успели заблокировать лишь сотню. Остальные предлагали "работу в Камбодже, Таиланде, Вьетнаме" с обещаниями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й и дохода до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неделю".

Регу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включая Комиссию по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ю и коммуникаци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актически бездействовали: ее работа была парализована н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из-за спора о составе членов. Как результат - преступники получили время стереть следы.

### Масштабы бедствия

По данным МИД и пол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с 2023 года зафиксировано более 550 случаев похищений и исчезновений граждан РК. Из них 80 остаются нерас-

крытыми, а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находятся под стражей.

Наибольший резонанс вызвала смерть 22-летнего студента, замученного в плену. После этого число жалоб выросло лавинообразно: если в 2022 году речь шла лишь о десятке случаев, то в 2024-м - уже о 220, 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август - свыше 330.

### Почему молчали

Долгое молчание властей Кореи и Камбоджи объясняется сочетанием бюрократ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ловкости и страх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кандала.

Во-первых, система попросту не работала. Комиссия по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ю РК,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ранее, была парализована кадровыми спорами. Никто не хотел бр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лиция ссылалась на МИД, МИД - на комиссию, комиссия - на отсутствие состава.

Во-вторых,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ема была репутационно опасной. Среди задержанных в Камбодже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тех, кто доброволь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мошеннических схемах, а затем сам стал их пленником. Признать это - означало признать, что граждане Южной Кореи не только жертвы, но и соучастники преступного бизнеса.

И, наконец,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осторожнос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амбоджей и без того осложнились после отказа Сеула выдать запрошенного оппозиционера. Поэтому МИД предпочитал "решать тихо", избегая публичных заявлений - пока ситуация не вышла из-под контроля и не попала в СМИ.

### Запоздалая реакция Сеула

На фон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гнева президент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распорядился направить в Камбоджу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группу реагирован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м Чжин А. В ее состав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полиции, миноста и спецслужб.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нацбезопасности Ви Сон Нак сообщил, что приоритетом является возврат 60 задержанных корейцев.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камбоджийском "скам-сектор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около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ключая до тысячи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часть из которых оказались вовлечены в схемы добровольно.

Создана совмест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 20 камбоджийских и четыре корейских офицера. Кроме того, обсуждается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а" в полиции Камбоджи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отив граждан РК.

Хотя в парламенте уже звучат предложения о более жестких шагах, вплоть до направления спецназа, официально Сеул пока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Камбоджийская сторона обещает содействие

Пномпень пообещал содействие и уже передал часть задержанных Сеулу.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еступная индустрия в Камбодже приобрела колоссальные масштабы и во многом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китайскими сетями, что осложняет расследования.

На фоне происходящего Южная Корея повысила уровень опасности поездок в Камбоджу до второй ступени -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 "И жертвы, и соучастники"

Многие пострадавшие осознавали, что идут на сомнительные сделки, надеясь быстро заработать.

Профессор Ли Бён Хун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Чунан (Сеул) отметил: "Погоня за нереальной прибылью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 человека либо в преступника, либо в жертву".

А профессор полицейских наук Конкук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и Ун Хёк подчеркнул: "Власти должны не только расследовать конкретные случаи, но и перекрыть каналы вербовки,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поток новых жерт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Супруги послов побывал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13-14 октября супруги послов 13 стран, работающих в РК, в том числе, Эквадора, Мексики,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Монголии и Бангладеш,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культурного опыта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

винции организовала мероприятие,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 супруг диплома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Кёнсан-Пукто как места про-

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АТЭС,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Кёнчжу. Супруги посл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корейских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кимчи, изготовлен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изготовлении изделий из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и ханчхи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ни посетили также объекты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KBS World

##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перации и современный стационар: в КД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сштабное обновление

В старом корпусе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заверша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третьего и четвертого этажей. Там оборудуют операционные для оказани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А после операций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новых комфортных палатах. Ход обновления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зменения затронули не только внутренние помеще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На здании обновили фаса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сделал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Построили газовую станцию,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кислородом пациентов во время операций и после них.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лифт, теперь в нем свободно помещается медицинская каталка.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обустроили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стационар.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здесь готовы уже в ноябре. В отделении обновили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стены, пол и потолок,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мебель, украсили интерьер картинами и растениям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14 комфортных палат разной вместимости – всего 35 коек. В каждой есть душ и туалет. Также сделали переход между старым и новым корпусами КДЦ.

Раньше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не было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стационара. Специалисты делали только несложны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после которых пациент вечером мог уйти домой. Теперь у нас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отделение,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перации. Привлекаем ведущих докторов России для обучения наших врачей. А ключевым партнером стал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филиал которого недавно заработал на Сахалине.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иходилось как можно реже летать на материк з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Это же было одним из моих главных обещаний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 наличии медицинских показаний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пераци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у ОМС.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С вводом новых техн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выезде на лечение по многим из них отпадет.

На четвертом этаже старого корпуса сейчас оборудуют операционный блок.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 две передовые операционные, палату реанимации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мещения.

Были усилены несущ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тен на этаже. Сейчас идет монтаж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чистых помещений». Обязательное требование – защитная оболочка делается из свинца.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терильность в операционных. Приех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Москвы, чтобы все работы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ростые разнорабочие к таким процессам не допускаются, –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нов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которых прежд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е делали. Среди них –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и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суставов пальцев кисти, бариатр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ожирением, имплантация колец роговицы.

Еще две малые операционные работают сегодня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КДЦ. С открытием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них тоже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слож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о урологии, гинекологии, проктологии, лазерной хирургии и другим профилям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После операций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 по переходу между зданиями в стационар. Здесь они с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комфортных палатах три-семь дней – столько в среднем требуетс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тметим, капитальное обно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дет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этом году капремонт затронул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2026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в Смирныховской и Долинской ЦРБ.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Умную»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в начале 2026 год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Здесь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около 10 тысяч юных пациен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 полный спектр диагностики,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и отделение реабилитации.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

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активно возводятся медицинские объекты. Универсальные поликлиники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строят в Холмске, Углегорске и Хомутово. Их сдача намечена на 2026 год. Еще два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появ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на 17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в селе Дальнем введут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Вторая – на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 рассчитана на 150 посещений. Она откроется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ает только одна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 на улице Емельянова. Мы разгрузим ее благодаря вводу в строй двух соврем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ачестве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станет ближе и доступнее. Появятс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ервисы. В новой поликлинике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 примеру,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занятия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ой. В зале со шведской стенкой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у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после травм и заболевани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штате учреждения около 50 педиатров и врачей узко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Важно, что здесь также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Эта услуга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Поликлиника на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на мой взгляд,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ум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зонирование, чтобы дети с симптомами простуд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е пересекались с остальными пациентами. Здесь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рентген,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и весь спектр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начальник обособлен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К1» Андрей Урум.

В здании три этажа и один цокольный. На них разместили 130 кабинетов, включая технические помещения. Работы уже вышли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На трех этажах завершили отделку помещений и устройство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Приступаем к установ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все оно находится на объект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тоже выполнил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Уложили асфальт и брусчатку на тротуарах. Снаружи оборудовали газовую котельную,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вает поликлинику теплом, – сообщи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Давыдов.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Открытие еще двух соврем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 – в Долинске и Макарове –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027-2028 годы.

Кроме того, медицинские объекты возводят в селах по программе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Его инициатором ст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этом году построено 8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в селах Пионеры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Дачное, Третья Падь и Лесное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е, Успенское и Огоньки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До конца года откроются 3 врачебные амбулатории в селах Правда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Горное (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и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сельскую дорогу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Результаты поездки в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предст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ктивисты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они проверили исполнение 10 наказов главы региона. Одно из поручений –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улицу Ленина в селе Майском –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выполнили в неполном объеме.

Во время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в районы, встреч с жителями, прямых лин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ет десятки поручений.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следит за тем, чтобы эти указы исполнялись на местах качественно и эффективно. С начала года комиссия побывала в девя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 от Холмского и Долинского д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Вы – мои глаза и уши в районах. Получаете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людей и следите за тем, чтобы их просьбы выполнялись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оценке комиссии,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исполнительская дисциплина, в целом, находится на хорошем уровне. Из 10 поручений – 6 выполн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о другим еще не вышли сроки, и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Есть моменты, на которые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Жители села Майского просили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центральную улицу Ленина. Вы,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требова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рогу и обеспечить ее содержание по стандарт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униципалитет отчитался о выполнении поручения. Но когда мы приехали на место, то увидели, что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только подъездную дорогу к сел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лица Ленина состоит из бетонных плит. Они постепенно разрушаются, образуются ямы и выбоины, – долож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Юргов.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дорога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полностью.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отметила положи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Жители района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жаловались, что им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на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Поронайская ЦРБ заключила договор с ч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клиникой. Теперь пациенты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по полису ОМС недалеко от дома, больше не 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сходы на питание и проживани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ьная группа зафиксировала еще ряд успешных выполненных поручений губернатора. В квартире, которую пенсионерка получила по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делали ремонт и исправили ошибки застройщи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получили помещение для этноцентра, где старейшины передают традиции молодежи. По просьбе активных ребят в Поронайске состоялся четвертьфинал Сахалинской лиги КВН. В селе Малиновка появилась площадка с крытой сцен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е остали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и подв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Хорошими темпами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как и во всей области, по вашему поручению идет ремонт подвалов. Мы спустились в подва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на Сахалинской, 17. В целом оно в норма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но требу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тмостки. Иначе в период ливней и таяния снега ситуация может обостриться, – сообщила губернатору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Задача на этот год –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1000 подвалов. Сейчас меня убеждают, что около 150 нужно перенест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могут заблуждаться. Когда я бываю в районах и insпектирую подвалы, вижу, что зачастую истинная причина подтопления остае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Начинают бетонировать пол, красить стены, а разрушенную отмостку не видят. Поэтому нужна ваша помощь как независимого эксперта, которому я доверяю. Посетите эти подвалы и убедитесь, правдивы ли их аргументы, – обратил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к руководител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с инспекционной группо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новый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Он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онтроле до пол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 Акция «Добро в село» состоялась в Охотском

21 октября медиц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Охотско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иемо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Добро в село» позволила всем желающим за одно посещение ФАПа проверить состояни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и эндокринной систем, пройти прием гинеколога, узнать свой ВИЧ-статус, пообщаться с психологом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Акция «Добро в село» помогает жителям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В Охотском в ФАПе работают два фельдшера, которые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ят осмотр пациентов, проводят первый этап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оказывают первую помощь. Однако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в районный ил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ы.

В медпункт прибыл десант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кардиолог, эндокринолог, гинеколог,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СПИД и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одим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 также вс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ередаются фельдшер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наблюдения.

Визит специалистов ЦРБ в мало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у нас происходит регулярно. В этом году бригады ЦРБ посетили все посёлк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по расписанию выезжают маммографический, флюорографически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ы. Отличие акции «Добро в село» именно в привлечен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е не приезжают в ФАПы в составе основной делегации, – отмети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Алексей Бойков.

Помогают специалистам в работе с населением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Они отвечают на вопросы пациентов, помогают специалистам в проведении процедур. Жаворонкина Вероника участвует в акции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Сегодня её основным видом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а работа на кардиовизоре – специальном устройстве для выявления скрытых сердечных патологий.

За время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бираем опыта в общении с людьми и будущими коллегами. Особенно это важно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ервых курсов,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вникают в профессию. Поэтому акция полезна не только для пациентов, но 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 поделилась Вероника.

Среди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хронические неинфекцион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 патологии сердца,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Регулярны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осмотры крайне важны для контроля показателей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возможных угроз здоровью. Для жителей сёл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пациенты посещают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овременных ФАПах, возведённых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고려아리랑', 고려인 동포의 역사와 삶을 재조명하다

## 고려인의 아픈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일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8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고려아리랑'에 참석해 고려인 관련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고 축하했다.

동 행사는 사단법인 너머, 안산시,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안산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예술단의 태평무 공연, 고려인 이주 역사 및 독립운동 관련 전시, 고려인 음식 문화 전시, 시민 참여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독립과 해방 이후 국가 발전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며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피와 땀을 흘린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 동포들의 최근 국내 귀환은 단순 이주나 이민이 아닌, 단절된 역사의 복원을 의미한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들을 단순히 외국인이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중심이 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 국내체류동포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향후 맞춤형 교육, 분야별 정착지원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제도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 행사에 참석한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고려인 선조들의 독립 정신과 개혁의 발자취를 기리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 등 국내 귀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고, 우리 국민들의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국민과 동포사회 간 상호 이해와 연대 강화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와 재외언론의 역할"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동포언론인 50여명 참가, "객관적 조명 통해 통일 담론 넓힌다"

(서울=동포저널)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외 언론의 역할과 한반도의 평화, 언론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제18회 국제심포지엄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와 재외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이하 세한협)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20개국 30개 도시의 한인 언론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는 김덕룡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이상기 아시아기자협회 초대회장, 세언협 고문번호사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 김금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장국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언협 김명곤 회장은 개회사에서 "언론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펜을 들어왔다"며 "이제는 분단의 상처 앞에서 화해와 통합의 언어로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류 언론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있을 때 재외 언론은 보다 자유로운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의 의제를 조명할 수 있다"며, "통일은 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홍수 상임고문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켜온 주역은 바로 재외 언론인들"이라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투명한 지원,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회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룡 김명수센터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언론이 외면한 분단과 통일 문제를 재외 언론이 다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제18회 국제심포지엄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C) 공동취재단 김수호 기자

시 주목해줘서 가슴이 울려퍼졌다"며 "언론이 민족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목탁을 넘어 민족의 목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코리아'라는 단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판 시오니즘'이라며 "전 세계 8,500만 한민족이 온전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외 언론이 민족의 목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는 "언론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과 상식으로 무장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74년 자유언론을 외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134명은 아직 복직되지 않았다"며 "해외 언론 역시 같은 신념으로 자유언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성현 대표 최재웅 변호사는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언론인 개개인은 법적 책임과 압박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세계

한인 언론인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며 "진실을 전하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사명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상기 아시아인 대표는 "재외 언론은 고향과 디아스포라 사회를 잇는 통신 선이자 공동체의 기록자"라며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조은별의 김백봉부채춤과 남수정 무용단의 축하 공연이 열려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

대회 이틀날인 14일에는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이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와 재외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재외언론인들이 참여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인천 강화, 금산, 창원·진해·마산 등지를 순회하며 각 지역의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고, 재외동포 관련 기관과의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전라남도 합평군, 전남관광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세계한인네트워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국내외 20여 개 기관이 후원했다. 김명곤 회장은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한반도 평화 8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언론의 역할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가 모국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언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동포저널 (DONGPOJOURNAL) (<https://www.dongpojournal.com>)

##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окружного слёта студотрядов «Волна» на Сахалине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200 участников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 проекта от Росмолодежь - формировали пла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спортивном, культурном и творче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бедители определены по шести категориям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строительному, путин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отрядам проводников и конкурсу среди пресс-служб.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дено совместно со Штабом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МОО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Среди ярких событий слёта состоялся конкур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ТрудКрут», где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роходил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рактические и твор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Среди призёров оказалась Анастасия Краева из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представлявшая студенче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отряд «Панацея».

— Сложности были, конечно. Особенно мне было трудно соблюдать чек-лист. Я не ожидала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Спасибо всем.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программ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Центр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 проекта от Росмолодежь, помогла участникам повысить компетенции и наладить полезные контакты с будущи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и Кожепенько,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привлечению талантливых кадров и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нас важн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влечения но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овлеченных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своем развити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м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х со спецификой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ть о тех возможностях, которые есть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обратить их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в целом в стране существует ряд инициатив, помогающих в дости-

жен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Ребята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 поговорить с ними об имеющихся вакансиях,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прохождении практики, просто обменяться контактами на будущее. Также мы познакомили их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воей реализации в проектах Росмолодежи.

Помимо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рошла спартакиада, включавшая в себя пять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ейбол, баскетбол, перетягивание каната, многоборье и фиджитал-спорт. Из четырёх регионов-участников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первое место —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второе место —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третье место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вижение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 одн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а Сахалине зажглись новые звёзды в рамках твор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ые таланты показывали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в стенах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Симфо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вокальном, танцевальном и театр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 итогам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ста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РСО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за достижени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й работе, а также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очётный знак з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ах получили Аксинья Суслонова — специалист окружного штаба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ДФО и Илья Кошеутов —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роите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Никита Пушко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подвел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держит планку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же сейчас мы трудоустроили более 2700 бойцов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из, более чем 40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а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ет трудоустроено более 3000 человек.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десяти трудовых 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два всерос-

сийских проекта медицинской и сервис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ей. Слет —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точка, где мы подводим внутренние итоги округа, развиваем ребят, определяем лучших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порте и творчестве. В этом году мы впервые изменили формат и получили колоссальный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клик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Надеемся, что в 2026 году мы продолж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едь пла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могают ребятам понять свои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в своем регионе, но и в стране в целом.

Дви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возобновлено в 202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ООО «РК им. Вострецова», ООО «Витязь-авто», ООО «Ист-Трейддинг», ООО «Колхоз Октябрь», АО «Гидрострой»,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и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нгелина Сыров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Строите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 Пути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ероника Гинеборг (Хабаровск)
- Медицин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настасия Краева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проводников: Алёна Винник и Владимир Хомяко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Конкурс среди пресс-служб: Виктория Рубашова и Варвара Греб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중앙 연방관구에서는 338가족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볼가 연방관구에서는 284가족팀, 북서연방관구에서 271 가족팀, 시베리아 연방관구에서 161가족팀, 우랄 연방관구에서 156가족팀, 남부(돈바스와 노워로시아 포함) 연방관구에서 129가족팀, 북부카프카즈 연방관구에서 128가족팀, 극동 연방관구에서 56가족팀이 출전하게 되었다. 준결승전 출전자들의 수에 따른 상위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스타브로폴스키, 크라스노다르스키 변경, 스웨르들롭스크주, 첼랴빈스크주, 니즈네고로드주, 사마라주, 우드무르치야가 올랐다.

준결승전 직접 참가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부 연방관구와 북부 카프카즈 연방관구, 돈바스와 노워로시아 지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로스토브나도누에서 진행되고, 다음 단계는 11월 27일 - 29일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12월 6일 - 8일까지 노워시비르스크에서 준결승전이 진행된다.

## Более 1500 семейных команд вышли в полу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объявил участников окружных полуфиналов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В этот этап прошли 1 523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со всей страны. Решение утвер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нкурса, где также согласовали график 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2025 год.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выход в финал и главные призы — 60 сертификатов по пять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и семей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нкурса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ект побил собственные рекорды.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пуская конкурс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редска-

зал его популярность и оказался прав. В этом сез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726 тысяч человек —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ловам Кириенко,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к конкурсу отражает отношение россиян к семейным ценностям и показывает, насколько крепки семейные связи.

Он привел примеры участников — многолетние семь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целые династи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конкурс.

Дистанцион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длился четыре месяца, в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агалось 48 заданий — от творческих до спортивных и кулинарных.

В Центра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полуфинал прошли 338 семейных команд, в Приволжском — 284,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 271, Сибирском — 161, Уральском — 156, Южном (вместе с Донбассом и Новоросси-ей) — 129,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м — 128,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 56. Лидерами по числу полуфиналистов стал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осква,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и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я, Свердловская, Челябинская, Нижегородская и 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Удмуртия.

Первый очный полуфинал пройдет с 13 по 16 ноября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з Южного 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округов, Донбасса и Новороссии. Затем этапы состоятс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27–29 ноября) и Новосибирске (6–8 декабря).

## 〈러시아는 역사 보존자를 찾는다〉, 전국 역사적 기억보존 기획 경연 시작

국가의 과거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획들에 대해 설명할 대학생, 교육자, 자원봉사자, 모든 관심을 갖는 분들을 기획 공모전에 초대한다.

역사적 기억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전 러시아 기획 공모전에 러시아의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연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국립 역사적 기억센터와 '통합러시아당' 정당의 당원들이 주최한다.

기획 공모전 참가에 대학생, 교사, 역사 연구가, 박물관 및 도서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과 역사를 주제로 책을 쓴 작가

들을 초대한다. 이 공모전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우리나라의 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한다.

우수 기획의 제작자들은 전문가와 단체의 지원을 받고, 지역 간 연계를 구축하며, 협력자와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이 추진하는 바를 확장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기획 공모전 1차 비대면 단계는 2025년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주최 측은 이 경연이 역사적 기억보존을 위한 대규모 전 러시아 운동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참가문의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모전 규정에서 알아볼 수 있다.

## Россия ищет хранителей истории: в стране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инициатив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Студентов, педагогов, волонтеров и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приглашают рассказать о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беречь прошлое страны.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ициатив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се, кто занимается дел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историей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и сторонник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 студент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сториков, музейных и библиоте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и автор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о контента. Конкурс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охраняют память о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и героях нашей страны. Авторы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получат экспертн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смогут наладить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привлечь партнеров и ресурсы, а также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свои инициативы.

Первый, заоч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родлится до 1 ноября 2025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Подробности участия и форму заявки можно найти в Положении о конкурс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시한인회 노인정을 잘 찾아오시고 사할린한인사회계에서도 잘 알려진 조영제 어르신이 2025년 10월 11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별세하였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 일동**

11 октября 2025 г.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онесла невосполнимую утрату – ушел из жизни один из наших



старожилов, отмеченный нагрудным знаком «Шахтерская слава» III степени, чле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Де Ен Де (Юрий Иванович).

Юрий Иванович был настоящим тружеником, чей многолетний труд в шахте пос. Бошняково был отмечен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и медалями. Он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нашей памяти как человек сильный духом, добрый сердцем и бесконечно преданный своей семье и профессии.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ЮСМООК**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사 애독자이신 조영제 응께서 2025년 10월 11일 사망 비보에 매우 슬펐습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